

 POSRI 보고서

#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, 창업

곽배성 수석연구원, 글로벌연구센터 (bskwack@posri.re.kr)

## [목 차]

1. 중국의 창업 열풍
2. 중국 창업 인프라의 태동
3. 중국 창업 인프라의 발전
4. 전망 및 시사점

## Executive Summary

- 중속 성장기로 접어든 중국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민간과 시장 기반의 창업을 선택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함
  - 2105년 3월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는 "대중창업, 만중혁신(大眾創業, 萬衆革新)"을 천명하고 민간의 창업을 위하여 각종 행정규제의 축소/철폐 및 자금 지원을 선언
  - 중국의 벤처기업들이 세계적 성공을 거두자 창업을 선호하는 중국의 젊은 인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함
-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과학기술을 상업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음
  - 80년대 후반부터 북경 중관춘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학교, 연구소, 기업이 협력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혁신클러스터 공간을 설치
  - 90년대 중반부터는 우수 해외유학생의 귀국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학생 창업단지 조성 및 창업하는 유학생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함
- 2010년을 전후해 중국의 창업 인프라는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발전해 가고 있음
  - 1) 정책
    - 중국 정부는 창업에 필요한 등기 및 허가증 발급에 소요되던 행정 절차 및 비용을 축소·폐지함으로써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
    - 청년층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세금감면, 창업자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, 전국 대학에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임
  - 2) 자본
    - 다양한 IPO시장을 통한 투자자금의 회수가 용이하고 높은 투자회수율로 인하여 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벤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
    - 성공한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들이 엔젤투자자 역할을 하며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끌고 있음
  - 3) 커뮤니티
    - 정부가 구축한 혁신클러스터에 창업카페와 같이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공간이 가세하면서 '중창공간(衆創空間)'이라는 중국 특유의 창업 커뮤니티가 탄생
    - 유명 벤처기업의 퇴직자들이 Alumni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새로운 창업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투자를 시행하고 있음
- 정책의 올바른 실행 여부, 지적재산권, 정보통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, 중국의 창업 열풍은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

## 1. 중국의 창업 열풍

### □ 창업,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

- 2015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민간과 시장을 창업의 주체로 강조하는 “대중창업, 만중창신(大衆創業, 萬衆革新)”을 천명
  - 중속 성장기로 접어든 중국은 일반 대중의 창업과 혁신을 통하여 일자리창출, 경제 활성화, 창조적인 방향으로의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음
  - 리커창 총리는 민간 주도의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각종 규제 개혁 및 지원 확대를 시행할 것을 선언함
- 경제 둔화 및 기존 사회 질서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중국의 인재들이 새로운 성공의 돌파구로 창업을 선택하고 있음
  - 2014년 첫 커리어로 창업을 선택한 인력은 약 290만 명으로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한 반면, 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140만 명으로 사상 최저 기록<sup>1</sup>
    - 시진핑 정부의 부패척결 및 국영기업 실적둔화로 전통적 인기 직종이던 공무원·공기업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면서 청년층이 창업을 성공의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음
  - 창업을 통해 세계적 수준으로 성공한 중국 ‘IT업계의 4대 천황’ 또는 ‘TABX<sup>2</sup>’로 불리는 텐센트, 알리바바, 바이두, 샤오미의 사례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창업으로 이끄는 기폭제가 되고 있음
  - 실제로 2010년에는 94만 개의 혁신기업이 탄생했으나 2014년에는 365만 개로 증가하면서 해당 기간 창업시장이 연평균 40%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

<중국의 대표적 IT 벤처기업, TABX>

| 회사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설립         | 설립자          | 상장                   | 사업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텐센트<br>(Tencent)<br>  | '98<br>선전  | 마화팅<br>(馬化騰) | '04 홍콩<br>(SEHK)     | 온라인 메신저, 게임 등 |
| 알리바바<br>(Alibaba)<br> | '99<br>항저우 | 마윈<br>(馬雲)   | '14 뉴욕<br>(NYSE)     | 전자상거래, 전자결제 등 |
| 바이두<br>(Baidu)<br>    | '00<br>베이징 | 리엔홍<br>(李彥宏) | '07, 나스닥<br>(NASDAQ) | 인터넷 포털 등      |
| 샤오미<br>(Xiaomi)<br>   | '10<br>베이징 | 레이쥔<br>(雷軍)  | 비상장                  | 모바일폰 제조 등     |

<sup>1</sup> 출처: 중국공상국

<sup>2</sup> TABX: 중국 인터넷 기업 3대 명가 Baidu, Alibaba, Tencent를 의미하는 BAT에 최근 Xiaomi를 추가하여 TABX로 부름

## 2. 중국 창업 인프라의 태동

### □ 개혁·개방 이후, 정부 주도로 창업 인프라 구축 시작

- 80년대 후반부터 중국 정부는 혁신클러스터를 설립하고 첨단기술 개발 및 보유기술 상업화 촉진을 추진해 왔음
- 1988년 중관촌(中關村)을 시작으로 전국에 27개의 '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'를 지정하고 지구 내 창업 기업들에게 세금감면, 설비지원 등의 혜택 제공

#### [참고] 중관촌(中關村)

- 북경 북서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칭화대, 북경대, 중국과학원 등 중국 최고의 대학과 연구소가 자리잡고 있어 인력 및 기술 인프라가 풍부
- 초기 벤처 기업 대부분이 중관촌 일대 학교·연구소에서 파생되어 설립된 교판기업(校辦企業)\*임
- \*교판기업: 학교 출신 기업이란 뜻으로 IBM PC사업부문을 인수한 레노버 (Lenovo)가 북경대의 출자로 설립된 대표적인 교판기업
- 현재 2만여 개의 기업뿐만 아니라 창업투자사·인큐베이터·컨설팅사 등까지 밀집하여 연 430조원 매출의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하였음

- 이공계 박사급 위주의 귀국유학생(하이구이, 海龜)<sup>3</sup>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용 단지 및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
- 1994년 난징에 최초로 설립된 귀국유학생 창업단지(과학기술부에서 관리)는 현재 전국에 280개 단지로 확장되었으며, 16,0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4만여 명이 근무 중이며 지금까지 35,000개의 기업을 배출
- 2006년부터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해외 우수 창업 인재 초빙을 위하여 '유학인원귀국창업지원계획'을 발표하고 유학생이 창업한 하이테크 기업의 소득세를 40% 감면해주고 세금공제 확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음
- 중앙·지방 정부가 투자기금·기관을 설립하여 초기 창업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기여
- 80년대 후반 과학기술부 주도로 중국신기술창업투자공사, 중국과기초고 기술유한공사 등이 설립되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음
- '98년 북경시 정부 주도로 북경과기벤처투자구분유한공사(BVCC), 99년 과학기술부 주도의 중소기업창업기금이 설립되면서 경비 무상공여, 대출 등의 방식으로 창업 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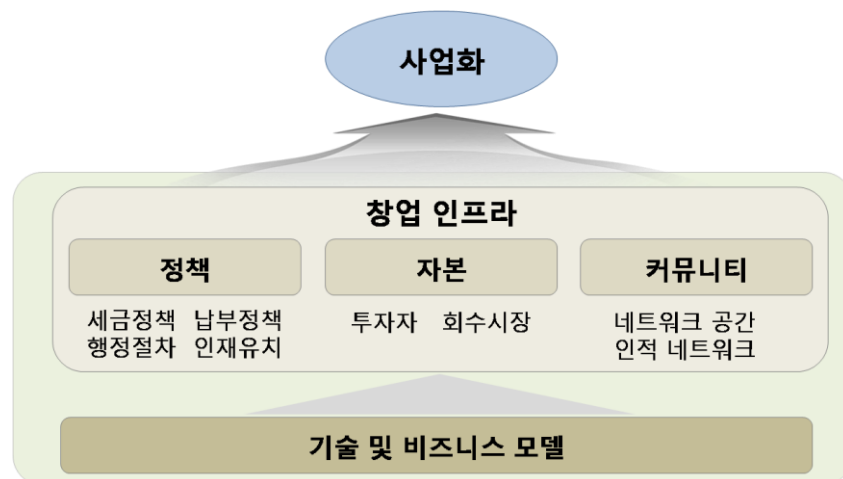
<sup>3</sup> 하이구이(海龜): 귀국유학생을 부르는 일종의 애칭으로 해외에서 돌아왔다는 뜻의 '해귀(海歸)'와 발음이 같고, 태어난 육지로 돌아오는 바다거북과 습성이 비슷한 점에 착안해 만들어진 용어. Baidu의 설립자 리엔홍이 대표적인 하이구이 창업자

### 3. 중국 창업 인프라의 발전

#### □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민간 주도 인프라 급성장

- 정부는 민간의 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민간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본과 커뮤니티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음
  - 2015년 중국 정부는 400억 위안(약 7조원)의 ‘국가 신흥산업 창업투자 인도 기금’ 조성과 함께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대중 창업 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음
  - 자본시장은 창업투자를 효과적인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으며, 인재들은 실리콘밸리에 필적하는 자생적 커뮤니티를 구축해 가고 있음

<창업 인프라 체계>



#### □ 정책: “대중창업, 만중창신(大衆創業, 萬衆革新)” 실현 지원

- 창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였던 기존의 창업비용 및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철폐하거나 축소함
  - 기존의 ‘공상등기제도’에서는 창업 등기에 최소 3만 위안(약 560만원)이 필요하였지만, 2014년부터 최소 금액 규정을 삭제하여 1위안만 있어도 창업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중소기업의 소득세도 50% 감면하였음
  - 창업 과정에 거쳐야 하는 160여 개의 행정절차를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‘홍딩중제(紅頂中介)<sup>4</sup>’와 같이 절차를 더디게 하던 요소들의 정상화를 추진함
  - 창업을 하기 위하여 각각 취득해야만 했던 영업허가증, 조직기구코드증, 세무등기증 3개의 증서를 하나로 통합한 ‘삼중합일’제도 시행

<sup>4</sup> 홍딩중제(紅頂中介): 정부의 기업 대상 업무를 위임 받아 시행하는 기관으로 입찰, 공증,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대행하고 있으나, 이로 인한 행정 절차 기간 및 비용 낭비가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었음

-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생 창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
  - 2013년부터 국무원은 졸업 후 바로 창업하면 그 해 세금 8천 위안을 감면해 주고, 12개월간 사무실 임대료 감면, 자문서비스, 대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
  - 2015년 교육부가 배포한 ‘전국 대학 졸업생 취업과 창업에 관한 통지’에  
▶재학생 휴학 창업 허용 ▶창업 전문 교과과정 개설 ▶성공한 창업가 교수 초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

## □ 자본: 벤처금융 및 회수시장 활성화

- 중국의 벤처캐피탈(Venture Capital)은 창업 기업의 주요 투자자로 자리잡고 있으며,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
  - 2012년 기준 중국 내 벤처캐피탈의 수는 2,200여 개, 벤처 펀드 투자액은 28조원에 이를 정도로 벤처캐피탈은 국가의 창업기금과 함께 주요한 창업 투자자로 부상함
  - 2014년 해외에서 중국에 유입된 벤처캐피탈 자금은 162.1억 달러 규모이며, 2015년 1분기에만 65.3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2014년 전체 투자 규모의 40%에 육박<sup>5</sup>
-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IPO 시장의 다양함과 함께 높은 투자 수익률이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
  - 흔히 '차스닥'이라 불리는 선전의 'ChiNext(창업판)' 시장은 시진핑 정부 출범 후 신성장 기업의 상당수를 배출하며 시가총액이 5년간 1,400% 증가하였음
  - 부동산 경기 정체, 저금리 등이 투자자들을 창업시장으로 유인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2년도의 벤처 투자 회수율은 평균 7~8배에 이르렀음
  - 선전의 중소기업판(SME), 홍콩의 GEM, 북경의 신삼판(新三板) 및 미국, 싱가포르 증시 등 다양한 IPO시장의 존재도 투자자를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

<중국·홍콩의 중소·벤처기업 대상 주식시장 현황>

| 구분            | 설립/소재    | 상장기업 수  | 상장/유지 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ChiNext (차스닥) | '09, 선전  | 약 464   | 중소/벤처, 자본금 2천만 위안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SME (중소기업시장)  | '04, 선전  | 767     | 중소기업, 자본금 3천만 위안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GEM (성장주시장)   | '99, 홍콩  | 약 270   | 홍콩 성장주 (중국 기업 포함)<br>상장 후 Market Cap이 4,600HKD 이상 |
| 新三板 (신삼판)     | '13, 베이징 | 약 2,000 | 하이테크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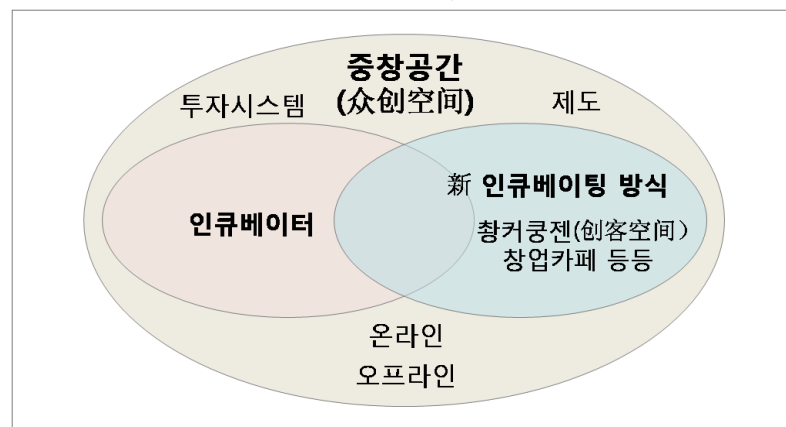
<sup>5</sup> 출처: Wall Street Journal(2015.7.8)

- 성공을 거둔 벤처기업과 창업자들이 새로운 엔젤투자자로 부상하며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끌고 있음
  - 레노버는 레전드캐피탈이라는 계열사를 설립하여 3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운용, 20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음
  - 텐센트는 바이두와 연합하여 중국 최대의 의학 포털인 덩샹웬에 7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기술 및 컨설팅을 제공
  - 2015년 3월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은 100억 위안을 투자하여 온라인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을 선언하였고 홍콩, 대만에도 4.5억달러의 투자기금을 지원하고 있음

## □ 커뮤니티: 민간 주도 자생 커뮤니티, 중창공간(衆創空間)<sup>6</sup>

- 정부가 구축한 혁신클러스터에 민간 주도의 창업공간이 가세하면서 중창공간이라는 중국 특유의 자생적 창업 커뮤니티 형성
  - 중창공간은 기존의 혁신 클러스터, 인큐베이터에 창커쿵젠<sup>7</sup>, 창업카페 등의 시장화된 새로운 인큐베이팅 방식이 추가된 개념으로 온·오프 라인 공간, 투자시스템, 제도 등을 총망라한 창업지원 플랫폼을 의미함

<중창공간 개념도>



- 베이징 중관춘의 츠어쿠(車庫) 카페와 같이 창업지망생과 투자자가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혁신공간이 자발적으로 생성되고 있음

### [참고] 츠어쿠카페

- 2011년 CDN 서비스기업 Chinesecache의 CEO였던 쑤디(苏荃)가 개업
- 빌 게이츠, 스티브 잡스가 차고에서 벤처를 시작한 것에서 영감을 받아 카페 명을 차고(츠어쿠, 車庫)로 작명
-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교류·창작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, 커피 한 잔 값에 회의실, 인터넷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
- 츠어쿠카페 출신 기업이 110개사에 이르며, 실리콘밸리에도 분점 개업

<sup>6</sup> 2015년 1월 리커창 총리가 처음으로 언급

<sup>7</sup> 창커쿵젠(創客空間): 창업자를 지칭하는 창커(創客)들이 공동으로 작업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소

- 상하이에는 2015년 텐센트가 초기 창업기업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 ‘텐센트 창업기지’를 설립하였으며, 향후 전국에 20개를 더 설립할 계획
- 하드웨어의 실리콘밸리와 불리는 선전에는 세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터들이 모여들고 있으며, S/W설계사, H/W설계사, 디자인하우스, 제작사 등이 모여 도시 전체가 벤처 커뮤니티화 되어 있음
- 유명 벤처기업을 퇴사한 Alumni들이 다시 창업하거나 투자에 뛰어들며 선순환적 Alumni 커뮤니티를 생성해 가고 있음
  - 유명 벤처의 Alumni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유치가 용이한데다 보유주식을 처분한 자금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제약 없이 자유롭게 공격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에 뛰어들고 있음
  - 알리바바 엔지니어 출신이 설립한 모구제(Mogujie), 알리바바의 재무를 담당 하던 직원이 설립한 아메바캐피탈 등이 대표적인 Alumni 기업임
  - 텐센트 Alumni들도 ‘Antarctic Club8’이라는 커뮤니티를 조직하여 퇴직 이후에도 아이디어와 지원을 주고 받으며 창업활동을 이어가고 있음

## 4. 전망 및 시사점

### □ 탄탄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업 중심의 경제로 이동

- 개혁·개방 이래 축적해온 과학기술과 창업 인프라 위에 중국 특유의 역동적인 창업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음
  - 과학기술개발 정책에 힘입어 중국의 R&D 투자와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고, 이는 혁신기업 창업의 밑거름이 되고 있음
  -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부(富)를 중시하는 문화와 함께 정부의 시장 중심 정책 지원이 지속적인 혁신을 이끌어 내는 힘이 되고 있음
  - 이미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중국 전체 GDP의 60%, 조세의 50%, 도시고용의 75%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창업 기반의 경제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<sup>9</sup>
- 행정규제의 축소, 원활한 자금 조달의 실현은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이며 정보 통제 및 지적재산권의 취약함도 풀어야 할 숙제임

<sup>8</sup> Antarctic Club: 텐센트의 로고 펭귄에서 명칭을 착안한 전직 텐센트 직원들의 커뮤니티

<sup>9</sup> 출처: World Trade Organization (2014.1)

- 정부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시행을 책임지는 하급관청의 기존 관행 타파 등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함
- 2014년 엔젤투자의 81%가 IT기업에 집중되었고, 전반적으로 IT 이외 산업은 창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음
- 중국 정부의 인터넷 정보 보안 정책에도 불구하고 IT 방면의 많은 혁신 기업들이 성공을 거두었지만,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터넷 문화의 개방이 필요할 것임
- 취약한 지적재산권 문제는 해외 혁신기업들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으며 창업의 동기부여를 약화시킬 수 있음

## □ 중국 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필요

- 중국 경제를 국가주도·제조중심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 복잡·다단한 자본주의 경제를 일구어가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함
  - 양적 기반의 제조업 중심이었던 중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를 타개하기 위하여 창업 기반의 혁신적 경제 구조 변신을 추구하고 있음
  - 제조업의 원가경쟁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의 융합 및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음
- 중국의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벤치마킹 요소나 협력사안을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함
  - 경제논리에 입각한 중국의 정책을 검토하여 국가, 기업, 대중이 상호 협력하여 혁신을 일구어내는 선진 창업 생태계 구축 필요
  - 중국의 혁신기업들과 투자, 기술개발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중국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방안을 도출할 수도 있음

## [참고자료]

### [보고서]

- 한국인터넷진흥원, "중국의 스타트업 정책과 한국의 과제", 2015.7
- 投中研究院, "众创空间专题研究报告", 2015.5
- 한국무역협회, "중국의 새로운 모멘텀, 창업대국", 2015.5
- LG경제연구원, "중국판 창조경제 '대중창업, 만인혁신'", 2015.5
- 중소기업연구원, "중국 벤처캐피탈 시장의 성장과 한계", 2015.4
- Van Eck Global, "Independent companies driving China's Growth", 2015.3
-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, "중국은 지금, 꽃보다 창업", 2015.3
- 자본시장연구원, "변화하고 있는 중국 벤처캐피탈 시장" 2013.봄
- 과학기술정책연구원, "중국의 대학생 과학기술창업과 정책지원", 2012.6

### [홈페이지]

- 중국 국무부 ([govinfo.nlc.gov.cn](http://govinfo.nlc.gov.cn))
- 선전증권거래소 (<http://www.szse.cn/>)
- 홍콩증권거래소 (<http://www.hkex.com.hk/>)
- 중국중앙텔레비전 (<http://english.cntv.cn/>)

### [언론]

- The Wall Street Journal, " Behind China's Billion-Dollar Startups: Alumni of Alibaba, Tencent", 2015.4.14
- 중앙일보, "中 청년창업 세계 1위, 중국의 대표적 IT클러스터 중관춘 ...", 2015.1.26
- South China Morning Post, "China's new 'third board' offers alternative financing to start-ups", 2014.5.31
- 한국경제매거진, 중국 벤처시장 네 가지 성장요인", 2013.7.25
- Want China Times, "Cafes in Beijing's tech hub become startup incubators", 2013.2.16